

소요리문답 (상)

타락

<타락> 13-19문

문13.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답13.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원래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1) 전 7: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1. 인간의 타락

1-1. 인간의 원래 상태

-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1-2. 인간의 타락

- 사전적 정의 :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나쁜 길로 빠짐. 죄를 범해 부패하고 불신 생활에 빠짐
-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서 죄를 짓고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2. 타락의 책임

- 하나님 vs 인간 (아담과 하와)
- 하나님께서는 인간(아담)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 욕심으로 인하여 그의 중심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자리잡게 되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 죄의 책임, 타락의 책임은 ()에게 있습니다.

문14. 죄란 무엇입니까?

답14.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 1) 레 5: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 2)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죄의 정의

- 성경이 말하는 ‘죄’란 도덕, 윤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법,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라 칭하고 있습니다.
- 결국 죄라는 것은 ()입니다.

문15.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답15.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 1)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첫 조상의 죄

-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불순종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는 일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 첫 조상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됨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교만이 불순종의, 죄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 죄의 기본적인 '원리' ****

- 첫 조상의 죄는 단순히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 그들로 죄를 짓게 한, 불순종하게 한 것은 그들의 '교만'은 모든 죄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 하나님의 뜻, 말씀을 모르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고 싶기에, 교만하기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16.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답16.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모든 후손, 인류가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에 포함되기에 그의 첫 위반으로 그 안에서 죄지은 것이고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 1)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2) **고전 15:21-22**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 아담만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언약

- 생명언약, 행위언약은 단순히 아담 개인만을 위한 언약이 아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들(아담을 대표로한 온 인류가)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통해 이것을 확증하셨습니다.
- 그렇기에, 확실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던 아담을 대표로 삼아주셨습니다.

2. 대표의 죄 = 우리의 죄

-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분명 능력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보이며 이 언약을 깨어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실패는 곧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의 실패, 그의 죄는 곧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3. 일반적인 출생

- 첫 조상이며 동시에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는 시작됩니다.
-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의, 인류의 방법으로 인한 모든 것은 '죄'를 포함하게 됩니다.
-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유일한 인간은 일반적인 출생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존재, 단 한분이십니다.

**** 대표의 실패가 왜 우리가 실패가 될까요? ****

- 대표성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17.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답17.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1) **롬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2) **약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목적에서 벗어난 삶

- 인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 인류의 대표의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기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죄는 계속남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만을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 목적에서 벗어난 삶 = ()삶, 이것이 곧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문18.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답18.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 근본적인 의로움의 결핍,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곧 원죄라 불리며 이 원죄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고 뒤따릅니다.

- 1) **롬 5:12,19**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2) **엡 2:1-3**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 3) **약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4) **마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 원죄

1-1. 죄책

- 죄의 책임, 죄의 값을 말합니다.
- 죄의 결과로 인류는 의로움을 잃게 되었습니다.

1-2. 부패

- 이 부패는 곧 인류가 지니고 있는 전 속성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속성의 일부분,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 영역이 오염되었습니다.
- 타락의 결과로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의를 잃게 되었습니다.)
- '지'의 오염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정'의 오염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었습니다.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남을 미워하고 오해하기도 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 '의'의 오염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해 버렸습니다.

1-3. 죄책과 부패의 결과

- 의로움을 잃고 본성, 속성자체가 부패하여 인류는 죄인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원죄'라 칭하며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 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자범죄

- 자신이 짓게되는 죄를 뜻합니다.
- 원죄로 인하여 인류는 의로움을 잃고 의로운 일을 할 능력도 상실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존재, '죄'를 범하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문19.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답19.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모든 비참함을 면하지 못하며 죽게 되며,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 |
|---|
| <p>1) 창 3: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p> <p>2) 엡 2:2-3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p> <p>3)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p> <p>4)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p> |
|---|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

-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과의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 :

1-1. 진노와 저주

- 사람, 자연에 진노와 저주가 주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 하와의 탓으로 돌리는 아담 / 임신의 고통 /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는 욕구를 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욕구로 인하여 대립, 갈등)
- 땅도 저주를 받아 인간의 노동이 생계를 위한 고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2. 사는 날 동안 피할 수 없는 비참함

- 고통은 '죄'로 인한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1-3. 죽음

- 죄의 결과, 삶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 영생을 약속받은 인류이지만 죄, 하나님과의 끊어짐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4. 영원한 지옥의 고통

-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면 동시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 또한 있습니다.
- 죄에 빠진 사람, 인류는 살아서 모든 비참함(끊어짐)을 맛보며 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결론>

1. 죄 = ()

- 죄의 정체는 ()으로 인한 ()입니다.
-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려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죄의 결과 = 하나님과의 ()

- 죄로 인하여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타락, 비참함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삶의 태도

- 스스로가 죄인,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잘못, 죄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20-22문

문2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답20.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사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 1)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2) 롬 3:20-22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3) 갈 3:21-22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1. 택하신 하나님

- 예정 : 천사나 인간에 대한 작정하심, 구원과 영혼에 대한 일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일
- 선택 :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택하시는 것.
- 유기 : 죄의 상태에 그대로 두시는 것
-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신 일입니다.
-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이란 단순히 과거 어느 시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시각으로 이 영원전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 예정, 선택, 유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질그릇을 어찌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2.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 선택의 근거, 기준은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 택하신 자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받기 합당하기에 선택받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일입니다.
- 하나님께서 미리 거룩하고 의롭고 구원받기 합당한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삶이 기준이 되었다면 죄인인 우리들이 선택받고 영생을 누릴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건져내심

- 죄인인 우리는 죄와 죽음,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함의 상태에 놓여있는 택함받은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자는 스스로 그 죄와 비참함을 빠져나올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자'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 '구속'이란 노예시장에서 유래된 말로 몸 값을 주고 꺼내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죄의 값을 지불하며 택함받은 자를 비참함의 자리에서 꺼내어 옮겨 주셨습니다.

4. 은혜언약

4-1. 행위언약

- 행위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주의 형상들이 순종에 대하여 축복과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이 행위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합니다.
- 아담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행위언약은 깨어지게 되었고 이후 죄인이 된 인류는 완전한 순종은커녕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순종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 결국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언약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2. 삼위 하나님의 은혜언약

-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며 인류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인류의 대표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 지,정,의 모두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이해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사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가르치심들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믿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으로 획득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언약입니다.

4-3.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 ‘구약시대 = 행위언약 / 신약시대 = 은혜언약’ 이라 구분지어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 이 둘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섭리하심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행위언약	은혜언약
같은점		1)성격 :	
		2)당사자 :	
		3)외적 형태 :	
		4)상급과 별 :	
		5)목적 :	
다른점	사람의 상태		
	중보자		
	조건		
	약속		
	계시		

문21.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답21.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로서 사람이 되시었고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구별되는 두 본성으로, 그러나 한 신인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 1) **딤후 2:5-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 2)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3)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 4) **롬 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 5) **골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6) **히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속하는 존재,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닌 예수님 자체가 그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2.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 인간의 입장에서 원래 사람이었기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실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서는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존귀한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 상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할 수 없는 낮아짐의 결과이며 어찌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수 치셨을 것입니다.

3. 두 개의 본성, 한 인격의 신인

3-1. 두 개의 본성

- 두 개의 본성은 곧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뜻합니다.
- 하나님의 본성인 무한, 영원, 불변하심은 시간과 공간, 모든 속성에 있어 유한하며 변화를 전제하는 존재인 인간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놔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3-2. 결합된 본성

- 예수님의 두 개의 본성은 합성과 혼합이 아닌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성, 혼합은 변질 혹은 섞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원래의 본성을, 속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한 인간성과 함께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십니다.

4. 신인으로 영원히 계신 예수님

4-1. 영원

-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취하신 이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신인이셨으며 부활하는 순간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신인이셨습니다. 단 한번도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4-2. 영원히 계신 이유

-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 이는 곧 택하신 자들을 귀하게 여겨 절대 버리지 아니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인성은 부활 이후 신성에 어울리는 영화로운 인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변화된 영화로운 인성을 보이시고 지키심으로 택자들에게 영화로워 질 것을 보이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통하여 확증하고 계십니다.

5. 신인이셔야 하는 이유

5-1. 인성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

-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비참함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죄와 비참함 속에 들어와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에 죄에 대한 문제를 모른척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을, 죄값을,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5-2.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ися야 하는 이유

- 구속자는 단순히 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함은 물론 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 결국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또한 죄와 오염이 없어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이는 죄인이 된, 타락한 인류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문2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답22.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 1) 히 2:14,16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여 주려 하심이라"
- 2)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 3) 히 7:26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 4) 히 10:5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 5) 마 26: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 6) 갈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1.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다.

-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사람이 되셨으나 신성을 잃거나 신성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

2-1. 취하심

-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추가로 취하심을 뜻합니다. 변질과 합성, 혼합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하사 인성이라는 요소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2-2.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

- 예수님께서서는 참 몸과 인간적인,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틀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급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결론지어 예수님의 몸이 실제 육신이 아닌 육신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주장들은 곧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경험하신 죽음과 사망, 비참함을 부정하게 되며 더 나아가 부활과 승천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3.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심, 죄가 없으심

- 모든 인간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하게 되면 원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가 있는 존재가 구속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게 되사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결론>

1. 예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과 ()를 하십니다.
- 그것에 대하여 저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과 유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시며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로 인간인 저희들은 이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 그렇기에 저희는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선택받은 자, 유기된 자로 나누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구속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 = ()
-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을 이루게 하시고 죄의 ()을 지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서 승리하사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